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1, 61 - 75

원래정보와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와 사건경험방법이 아동의 출처추적에 미치는 영향

이 미 현　최 경 숙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출처추적 패러다임을 통하여 원래정보와 사후 오정보 간 유사성 정도가 출처추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가 연령과 사건경험방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6세 아동과 만 11세 아동 68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연령의 한 집단은 사건을 상상만 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건경험이 끝난 후 아동들에게 통제항목, 유사성이 높은 오정보 항목, 그리고 유사성이 낮은 오정보 항목이 각각 4개씩 포함되어 있는 언어적 사후정보를 들려주었다. 그 후 아동들은 출처추적 검사를 통하여 검사에서 제시되는 항목이 자신이 사건을 경험할 때(혹은 상상할 때) 나왔던 것인지, 카세트를 통하여 들은 것인지, 둘 다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인지를 구별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직접 경험한 사건일수록, 그리고 사후 오정보와 원래정보간 유사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출처추적 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사건경험방법에 따라 출처추적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유사성이 높을수록 연령에 따라 출처추적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유사성이 높을수록 사건경험방법에 따라 출처추적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들 간 유사성이 높을수록 출처추적에 더 혼란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사후 오정보의 패러다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정 사후 오정보 유형(대체정보/부가정보)에 따른 출처추적 혼란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아동기억, 출처추적, 유사성 정보, 사건경험방법

최근 들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혹은 특정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아동이 관여된 경우, 아동들은 때때로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의 증언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신뢰여부가 논쟁으로 남아왔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들이 성인에 비하여 아동들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 그 사

교신저자 : 이미현, E-mail : lmhyunny@hanmail.net

건이 자신들의 상상(imagined)인지 실제 일어났던 일(real)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떠한 양식으로 지각된 것인지에 대하여 잘못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Johnson & Foley, 1984; Lindsay & Johnson, 1989; Day, Howie & Markham, 1998; Sussman, 2001). 따라서 아동이 증언과정에 관여된 경우 이러한 아동의 특수한 기억능력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증언절차가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정진수, 2000).

많은 선행연구들(McClosky & Zaragoza, 1985; Ceci, Ross, & Toglia, 1987; Zaragoza, 1987, Belli, Lindsay, Gales, & McCarthy, 1994; Ackil & Zaragoza, 1995)은 아동들이 유도질문이나 면접과정에서 얻은 사후 오정보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아 원래사건(original event)과는 다른 그릇된 정보를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오정보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에게 원래사건을 목격하게 한 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후 오정보를 제시하고 원래정보에 대한 회상검사나 재인검사를 실시하는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이 피험자들의 요구특성이나 친숙성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 오정보만에 의한 기억 왜곡을 측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Ackil & Zaragoza, 1995; Zaragoza & Lane, 1994; Lindsay, 1990; Lindsay & Johnson, 1989; Zaragoza & Koshimider, 1989). 이들에 따르면 원래사건에 대한 아동의 기억을 검사할 때, 피험자들은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어 그들이 원래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회상해낸 것과 더불어 사후에 얻은 새로운 정보라는 것을 아는 항목까지도 검사에서 보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피험자들은 유도질문이나 면접을 하는 사람의 압력(pressure)에 부합하기 위해 오정보를 진술한다는 것이다. Ceci 등(1987)은 아동들의 진술 정확성이 오정보를 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반은 성인으로부터, 다른 반은 7세 아동으로부터 오정보를 받게 하였다. 실험 결과 피험 아동들은 7세의 아동에게서 오정보를 받았을 때 보다 성인으로부터 오정보를 받았을 때 오정보 효과를 더 크게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정보를 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 아동의 오정보 효과 정도가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존의 오정보 효과 패러다임이 아동의 순수한 기억능력만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Lindsay와 Johnson(1989)은 전통적인 재인검사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사건에서 제시되었던 사물과 새로운 방해자극의 구별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친숙성 규준을 적용시킨다고 하였다. 즉, 재인검사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친숙성에 의한 대답을 하도록 이끌 위험이 있으며 출처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친숙성 판단이 아닌 출처추적 판단을 하도록 지시한다면 오류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에 기초하여 Lindsay와 Johnson(1989), Lindsay(1990), Zaragoza와 Lane(1994), Ackil과 Zaragoza(1995) 등의 학자들은 좀 더 정확한 기억 측정을 위해 출처추적(source monitoring)검사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출처추적 검사는 원래사건을 목격하게 한 뒤, 원래사건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 다음 검사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출처추적 패러다임은 위에서 언급한 요구특성이나 친숙성 효과를 제거한 기억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Lindsay와 Johnson (1989)은 대학생에게 그림으로 그려진 목표정보를 제시하고 난 뒤, 언어적 사후 오정보를 제공한 다음 피험자의 반은 예/아니오 재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반은 출처추적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재인검사를 받은 피험자들과 비교하여 출처추적 검사를 받은 피험자들의 오정보 효과가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Zaragoza와 Lane(1994)도 대학생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준 뒤, 오정보를 진술문 혹은 질문으로 준 다음 재인검사와 출처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실험 역시 재인검사를 받은 피험자보다 출처추적 검사를 받은 피험자가 오류를 더 적게 보임으로써 Lindsay와 Johnson(198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후 몇몇 학자들은 허위기억을 연구함에 있어서 재인검사 대신 출처추적 검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Zaragoza와 Lane(1994)은 앞에 제시한 동일한 실험에서 출처추적 수행만을 따로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에게 “본 것/ 읽은 것/둘 다/새로운 것”을 구별하게 한 결과 오정보를 진술문으로 받은 집단과 질문으로 받은 집단의 피험자들이 모두 출처추적 오류를 보였으며, 그러한 오류는 오정보가 포함된 진술문을 읽은 피험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 뒤 Ackil과 Zaragoza(1995) 역시 1학년, 3학년, 5학년, 그리고 대학생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준 뒤, 슬라이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오정보가 포함된 진술문을 읽게 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의 반은 5분 후에, 다른 반은 2주 지연 후 검사항목이 슬라이드에서 본 것인지 진술문에서 읽은 것인지를 구분하게 하였을 때, 오정보 항목에 대한 출처구분에서 모든 피험자들이 암시된 정보를 자신이 실제로 본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uffman, Rustin, Garnham 그리고 Parkin(2001)도 6세, 8세, 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보여주고 난 뒤, 비디오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포함된 사후 오정보를 오디오로 들려주었다. 그 뒤 검사항목이 비디오에서 본 것인지, 오디오에서 들은 것인지를 구분하게 한 결과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출처추적에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출처추적 검사가 기존의 재인검사 패러다임이 가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Zaragoza와 Lane(1994), Ackil과 Zaragoza(1995), 그리고 Ruffman 등(2001)의 연구는 출처추적 검사 역시 사후 오정보 효과를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함을 보여주었다. 출처추적 검사에서 여전히 오정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Johnson, Hashtroudi, 그리고 Lindsay(1993)는 정보들간의 유사성을 들었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의 출처추적은 정보들간의 유사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처들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기억 오류도 더 커진다고 하였다. Lindsay, Johnson과 Kwon(1991)은 화자 특성의 유사성에 따른 출처구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4세, 6세, 대학생 피험자들 중 각 연령의 반에게는 목소리나 성별, 외모 등 지각적 특성이 유사한 두 명의 화자에 의해, 다른 반은 특성이 상이한 두 명의 화자에 의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시된 이야기 항목이 어느 화자로부터 들은 것인지를 구분하도록 하였을 때, 유사한 화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집단의 피험자들은 상이한 화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집단의 피험자들보다 출처구분에 더 많은 오류를 보였으며 그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Day 등(1998)은 정보들간의 유사성 정도가 출처구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2개의 기준행동목록을 정하고 그 기준행동목록과 유사한 행동목록 12개와 비유사한 행동목록 12개를 구성하였다. 유사한 행동목록은 기준행동목록에 대하여 각각 특정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시킨 것들을 의미하고, 비유사한 행동목록은 기준행동목록과 의미적으로 통하는 새로운 부가행동을 의미하였다. 5-7세와 11-12세 아동들의 반에게는 기준행동목록과 유사한 행동목록을, 다른 반에게는 기준행동목록과 비유사한 행동목록을 섞어서 동시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준행동목록과 유사한 행동목록 즉, 대체정보를 접한 집단의 출처추적 수행이 더 저조하였다.

Foley와 Ratner(1998) 역시 6세와 성인 피험자들에게 48개(유사한 행동항목과 비유사한 행동항목으로 구성)로 구성된 행동목록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행동항목이 유사한 것이었을 때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들은 개념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더 유사한 정보 즉, 대체정보일수록 출처를 구분해내는데 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한편 Day 등(1998)과 Foley와 Ratner(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들간의 유사성 정도는 아동이 법정 면접과정에서 받게 되는 사후 오정보의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아동이 도둑을 목격한 경우, 목격한 '검은 모자'를 사후에 '파란 모자'로 주입 받는 경우(대체정보)가 유사성이 높은 항목에 해당하고 실제 도둑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정보를 주입 받는 경우(부가정보)는 유사성이 낮은 항목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에 의한 출처추적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정보와 부가정보를 동시에 제시하여 출처를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 이를 사후 오정보로 제시하여 유사성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유사성에 의한 출처추적 오류가 아동이 법정 면접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후 오정보 패러다임에도 적용될 것인지가 의문으로 제기된다.

아동들은 꿈과 현실에 대한 출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뒤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울어대거나 꿈에서 본 현상을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현상인 것처럼 말하곤 한다(Johnson, Raye, Hasher, & Chromiak, 1979; Foley & Johnson, 1985).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Day 등(1998)과 Foley와 Ratner(1998)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때, 구분해야 할 정보들이 유사한 경우 유사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큰 오류를 보임을 증명하였다.

앞서 제시한 Day 등(1998)의 연구에서 기준행동목록과 유사한 행동목록을 접한 집단과 기준행동목록과 비유사한 행동목록을 접한 집단에게 각 행동목록의 반은 상상을 하게 하고 다른 반은 직접수행하도록 하였다. 출처검사에서 제시된 행동이 실제 했던 행동인지/상상한 행동인지/어느 것도 아닌지를 구분하게 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상행동과 실제행동 구별에 어려움을 덜 보였고, 유사한 행동(대체행동)을 접한 아동일 경우 상상한 행동을 실제 행한 행동이라고 잘못 기억하는 오류가 실제 행한 행동을 상상한 행동이라고 잘못 기억하는 오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Foley와 Ratner(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행동목록과 비유사한 행동목록에 대하여 반은 자신이 직접 상상을 하고 다른 반은 자신이 직접행동하는 집단과 반을 타인이 직접행동하고 다른 반은 타인이 상상하는 것을 관찰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검사 행동의 출처를 구분하게 한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실제 행한 행동을 상상한 행동이라고 잘못 기억하는 비율보다 상상한 행동을 실제 행한 행동이라고 잘못 기억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고, 그러한 경향은 유사한 행동항목(대체항목)일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상상한 사건일수록 유사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사건경험방법에 따른 사후 오정보의 유형(대체정보 ; 부가정보)이 출처추적에 차이를 줄 것임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처추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원래정보와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출처추적 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 사건경험 방법에 따라 원래정보와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가 출처추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며 동시에 그러한 경향에 있어서의 발달차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M유치원과 S초등학교에서 만 6세와 만 11세 아동 각 4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령, 사건경험방법 및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에 따른 집단별 연구 대상 수(명)

연령	사건경험방법	피험자수	합계
6세	상상하기	17	34
	직접 수행하기	17	
11세	상상하기	16	34
	직접 수행하기	18	
	합계	68	68

각 연령에서 사건경험방법에 따라, 상상집단과 직접수행하기 집단에 각각 20명씩 할당하였다. 이 중 출처추적 검사에서 공란으로 남겨둔 항목이 발견된 아동들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80명의 피험자 중 자료분석에서의 최종 피험자 수는 모두 68명이었다(표 1).

실험 과제

원래행동항목

원래행동항목이란 실험자와 피험자가 처음 만나 신체놀이 혹은 상상놀이를 할 때 수행하는 12개의 항목을 말한다. 이 행동항목은 '나는 나의 어깨를 앞으로 돌려요'와 같이 피험자들의 신체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2개의 행동목록 중 1-4번 항목은 사후 오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통제항목이고, 5-8번 항목은 '앞뒤로 돌려요→ 좌우로 돌려요'와 같이 사후 오정보에서 특정 세부 행동을 바꾸는 유사성이 높은 행동목록(대체정보)이 되며, 9-12번 항목은 사후 오정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유사성이 낮은 행동목록(부가정보)이 된다.

표 2. 원래행동목록

1. 나는 어깨를 앞으로 돌려요
2. 나는 나의 귀를 잡아당겨요
3. 나는 다리를 벌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어요
4. 나는 카메라로 선생님을 찍어요
5. 나는 머리위로 두 팔을 쭉 뻗어요
6. 나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다섯을 세어요
7. 나는 두 손으로 선생님에게 공을 굴려요
8. 나는 목을 앞뒤로 흔들어요
9. 나는 '앞으로 나란히'를 해요
10. 나는 박수를 다섯 번 쳐요
11. 나는 '안녕'하며 손을 흔들어요
12. 나는 두 손에 깍지를 끼고 힘을 주어요

원래행동항목 12개는 표 2와 같으며, 피험자

들은 각 사건경험방법에 따라 1번 항목부터 12번 항목의 순서로 경험하였다.

사후 오정보

사후 오정보 역시 12개의 행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원래행동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행동 4개, 원래행동의 특정 세부 항목만 변경된 유사성이 높은 항목(대체정보) 4개, 그리고 원래행동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피험자들의 신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맥락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유사성이 낮은 항목(부가정보) 4개로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사후 오정보 항목 12개는 무선적인 순서로 녹음되었으며 아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인 음성의 정확한 발음으로 녹음하였다.

표 3. 언어적 사후 오정보 행동목록

1. (통제) 나는 어깨를 앞으로 돌려요
2. (통제) 나는 나의 귀를 잡아당겨요
3. (통제) 나는 다리를 벌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어요
4. (통제) 나는 카메라로 선생님을 찍어요
5. (유사성상) 나는 머리위로 한 팔을 쭉 뻗어요
6. (유사성상) 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섯을 세어요
7. (유사성상) 나는 한 손으로 선생님에게 공을 굴려요
8. (유사성상) 나는 목을 좌우로 흔들어요
9. (유사성하) 나는 발끝으로 서요
10. (유사성하) 나는 웅크리고 앉았다가 점프를 해요
11. (유사성하) 나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요
12. (유사성하) 나는 나의 엉덩이를 툭툭 쳐요

실험 절차

예비실험은 2002년 2월 8일 서울시에 위치한 M유치원의 6세 아동 10명과 S초등학교 11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실험 과제 및 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본 실험은 2002년 2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대상은 예비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동들로 제한하였다. 실험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기 앞서 2회의 사전교육을 통해 훈련을 받은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4명의 실험자들은 2명씩 한 조를 이루어 상상집단과 직접수행집단으로 나뉘었고, 구체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실험 대상 아동이 실험 장소에 입실하게 되면, 아동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사는 곳, 가족 이야기 등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우선 상상집단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선생님과 ○○는 상상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는 상상한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지 알고 있니? .... 그래, 상상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행동들을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천천히 들려줄 테니까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반면 직접 수행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상상집단의 상상놀이라는 표현에 대응되도록 신체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제부터 선생님과 ○○는 같이 신체놀이를 해 볼 거예요. ○○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행동을 실제로 몸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자 일어나서 즐겁게 해 볼까요?”

12개의 행동목록에 대하여 상상놀이 혹은 신체놀이를 진행한 뒤, 실험자는 아동에게 언어적 사후 오정보를 제시하였다. “상상놀이(신체놀이)가 끝났어요. ○○는 참 잘 하는구나. 재미있었어

요? 그럼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녹음해 온 것을 들려줄 거예요. 이 카세트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상상한(신체로 표현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언어적 사후 오정보 제시 뒤 6세 아동의 경우에는 미로찾기 활동을, 11세 아동의 경우에는 기호쓰기 활동을 5분간 실시하게 하였다. 5분이 지난 후 아동들은 출처추적 검사를 받았다. 예비 실험결과 6세 아동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자신이 직접 "∨ " 표시를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y 등(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 카드를 응용하여 위의 4가지 보기의 내용을 의미하는 4장의 그림 카드 중 하나를 지적하면 실험자가 답안지에 그것을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 미로찾기(기호쓰기) 활동 재미있었니?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에게 어떤 행동을 읽어줄 거예요. 그럼 ○○는 그 행동을 듣고 그 행동이 상상놀이(신체놀이)에서만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카세트에서만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인지를 구별하면 되요. 만일 상상놀이(신체놀이)에서 나왔던 것일 경우에는 이 카드를 집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카세트에서 들은 것일 경우에는 이 카드를 집어서 보여주고, 둘 다에서 나왔던 것일 경우에는 이 카드를 집어서 보여주고, 새로운 것일 경우에는 이 카드를 집으면 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요."라고 지시하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출처추적 검사 행동 목록은 표 3에 제시한 언어적 사후 오정보 내용의 총 12개였으며 그 제시 순서 역시 무선적으로 하였다. 실험자가 총 12개의 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이 각 문항에 대하여 출처추적 반응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가량 소요되었고 한 아동 당 실험을 하는데 걸린 총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

12개의 문항에 대한 출처추적 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아동들의 반응은 한 문항 당 1점씩 총 12점이 만점이었다. 즉, 4개의 통제항목 4점, 4개의 유사성 하항목 4점, 4개의 유사성 상항목 4점으로 구성하였다. 4점 만점인 각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들을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연령과 사건경험방법은 피험자간 변인,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는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2(연령) × 2(사건경험방법) × 3(오정보의 유사성 정도)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t검증, 단순 주효과 분석과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만 6세와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과 사건경험방법, 원래정보-사후 오정보간 유사성 정도가 아동의 출처추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사건경험방법, 사후 오정보의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 수행

연령, 사건경험방법,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아동들의 출처추적 수행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 연령, 사건경험방법, 사후 오정보의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 정반응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사건경험방법	사후 오정보유형			
		통제 M(SD)	유사성하 M(SD)	유사성상 M(SD)	전체 M(SD)
6세	상상	2.00(.50)	.94(.43)	.35(.49)	3.29(.98)
	직접수행	2.47(.62)	2.18(.53)	1.24(.56)	5.88(1.41)
	M(SD)	2.24(.61)	1.56(.79)	.79(.69)	4.59(1.78)
11세	상상	2.81(.66)	2.31(.48)	1.63(.62)	6.75(1.18)
	직접수행	2.94(.80)	2.67(.59)	2.17(.62)	7.78(1.42)
	M(SD)	2.88(.73)	2.50(.56)	1.92(.67)	7.29(1.40)
전체M(SD)		2.56(.74)	2.03(.83)	1.35(.88)	

표 4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 경우, 그리고 사건을 직접수행하였을 경우에 출처추적 수행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오정보의 유형별로 보면 통제항목, 유사성이 낮은 항목, 유사성이 높은 항목의 순서로 출처추적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령, 사건경험방법, 사후 오정보의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 수행의 변량분석 결과

연령, 사건경험방법, 사후 오정보의 유사성 정도에 따른 출처추적 점수 변화에 대한 결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F(1, 64) = 75.19$, $p<.001$), 사건경험방법에 따른 주효과($F(1, 64) = 34.34$, $p<.001$), 사후 오정보의 유형에 따른 주효과($F(2, 128) = 102.79$,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정보항목의 유형에 따른 아동의 출처추적 점수의 주효과에 대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제항목과 유사성상항목($p<.001$), 유사성상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 그리고 유사성하항목과 통제항목($p<.001$)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사건경험방법에 따른 출처추적 수행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과 사건경험방법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64) = 6.39$, $p<.05$). 즉, 연령이 낮을수록 사건경험방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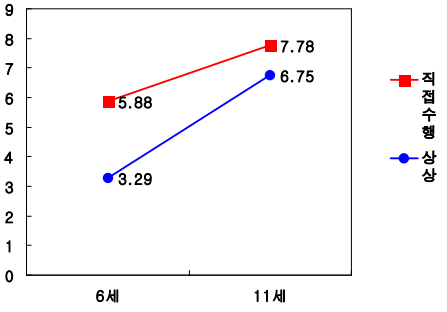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사건경험방법에 따른 출처추적 점수

또한 각 연령에서 사건경험방법에 따른 출처추적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6세의 경우는 상상집단과 직접수행집단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t = -7.78$, $p<.001$), 11세의 경우에는 상상집단과 직접수행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과 사후 오정보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 수행

연령과 사후 오정보 유형간 출처추적 수행 역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28) = 3.74$, $p<.05$).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통제항목, 유사성하항목, 유사성상항목의 순서로 출처추적 수행점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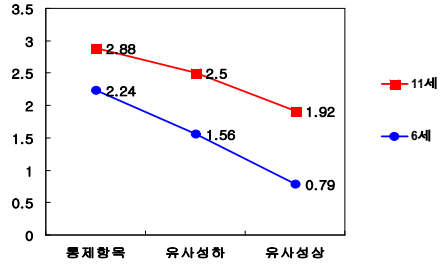

그림 2. 연령과 사후 오정보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 점수

연령과 오정보 유형간 상호작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6세의 경우 오정보 유형간 차이가 있었으며($F(2, 99) = 36.41$, $p<.001$), 11세에서도 오정보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2, 99) = 18.82$, $p<.001$). 또한 통제항목에서 연령간 차이($F(1, 66) = 15.85$, $p<.001$), 유사성하항목에서 연령간 차이($F(1, 66) = 32.18$, $p<.001$), 그리고 유사성상항목에서 연령간 차이($F(1, 66) = 46.26$, $p<.001$)가 유의미하였다.

각 연령대에서 오정보 유형에 출처추적 점수에 대하여 Scheffé 검증 결과에서는, 6세에서는 통제항목과 유사성상항목($p<.001$), 통제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 그리고 유사성상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1세에서는 통제항목과 유사성상항목($p<.001$), 유사성상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항목과 유사성하항목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경험방법과 사후 오정보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수행

마지막으로 사건을 직접수행하였을 경우 통제항목, 유사성하항목, 유사성상항목의 순서로 출처추적 점수가 더 높아짐으로써 사건경험방법과 오정보 유형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F(2, 128) = 4.86$, $p<.05$). 이에 대한 그래프를 아래에 제시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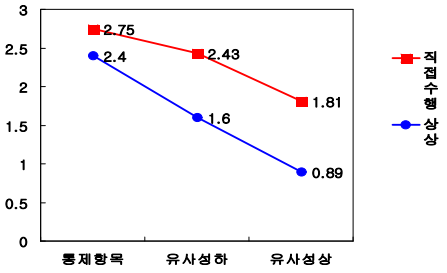

그림 3. 사건경험방법과 사후 오정보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점수

사건경험방법과 오정보 유형간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상상집단의 출처추적 점수에서 오정보 유형간 차이가 있었으며($F(2, 96) = 26.56$, $p<.001$), 직접수행집단에서도 오정보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2, 102) = 18.62$, $p<.001$). 또한 유사성하항목에서 사건경험방법간 차이($F(1, 66) = 22.01$, $p<.001$), 유사성상항목에서 연령간 차이($F(1, 66) = 14.76$, $p<.001$)는 유의미

하였으나 통제항목에서 사건경험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경험방법과 오정보 유형에 따른 출처추적 점수에 대한 Scheffé 검증에 따르면, 상상집단에서는 통제항목과 유사성상항목($p<.001$), 통제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 그리고 유사성상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수행한 집단에서는 통제항목과 유사성상항목($p<.001$), 유사성상항목과 유사성하항목($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항목과 유사성하항목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존의 오정보 효과 연구들이 사용한 재인검사나 회상검사 패러다임을 벗어나 출처추적 검사를 사용하여 아동의 기억을 측정하였다. 또한 유사성이 높을수록 출처추적에 더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들(Lindsay et al., 1991; Day et al., 1998; Foley & Ratner, 1998)이 원래사건과 사후 오정보 패러다임에서도 적용될 것인지, 만약 원래사건과 사후 오정보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출처추적이 더 어려워진다면 그러한 경향은 사건을 경험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이 법정 증언과정에서 겪게되는 사후 오정보의 유형(대체정보 : 부가정보)에 따라 출처추적 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어린 아동이나 나이든 아동 모두 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을 때보다 사건을 상상하였을 경우에 원래정보와 사후 오정보 간 출처추적에 오류를 더 많이 보였으며 오류의 정도는 11세 아동에 비하여 6세 아동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의 하나는 전두엽(frontal lobes)의 발달과 관련하여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즉, Ruffman 등(2001)에 따르면 전두엽과 출처추적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전두엽이 발달할수록 출처추적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또 Thatcher(1992)에 따르면 전두엽이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으므로 출처추적 능력도 그 시기가 되어야 능숙해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재인용. Ruffman et al., 2001).

또한 연령과 사건경험방법의 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6세의 경우에는 상상집단과 직접수행집단간의 수행차이가 유의하였으나 11세의 경우에는 상상집단과 직접수행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상하는 것은 직접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조작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어린 아동일수록 상상한 사건에 대한 출처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Parker(1995)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1세 아동들의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건을 상상할 때 생기는 인지적 복잡성이 출처추적에 주는 방해를 덜 받게 되어서 상상을 한 사건이더라도 직접수행한 사건만큼의 기억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사후 오정보 유형(유사성상(대체정보) : 유사성하(부가정보))이 출처추적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 오정보가 원래정보와 더 유사할수록 출처추적의 정확성이 낮았는데 그 오류의 정도는 어린 아동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ay 등(1998), Sussman(2001), 그리고 Lindsay 등(1991)이 항목들을 동시에 제시

하고 난 뒤 출처추적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제시된 항목들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출처추적에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며 어린 아동일수록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사후 오정보 패러다임에서도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연령별 유사성 정도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6세 아동들은 통제항목, 유사성이 낮은 항목, 그리고 유사성이 높은 항목들간 출처추적 정확도 차이가 각각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11세 아동의 경우에는 통제항목과 유사성이 낮은 항목간의 출처추적 정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사성이 낮은 항목의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유사성이 높은 항목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쉬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1세 경이 되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사성이 낮은 항목은 통제항목만큼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의 출처구분 능력이 11-12세 사이가 되면 능숙해지기 시작한다는 Piaget(1929)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것이다(재인용. Day et al., 1998).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목격증언에서 어린 아동들은 대체정보와 새로 주입 받은 부가정보 모두에서 그 출처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 새로 주입 받은 부가정보는 통제정보만큼의 구분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경험방법에 따라 사후 오정보 유형(유사성상(대체정보) : 유사성하(부가정보))이 출처추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후 오정보 간 유사성이 높을수록 출처구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경향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정보를 얻은 집단보다 상상을 통하여 얻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상상하는 것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인지적 조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Parker, 1995)이며 그러한 인지적 조작은 출처들간 유사성이 높을 때 더 복잡해진다는 주장(Johnson et al., 1993)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정보들을 동시에 제시한 뒤 출처추적 검사를 한 것과 달리 원래정보와 사후 오정보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출처추적 검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아동들은 사후 오정보 유형 중 부가정보를 주입 받는 경우보다 대체정보를 주입 받는 경우 정보들의 의미적 · 개념적 특성이 더 유사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출처추적에 더 큰 어려움을 보일 것임을 시사하였다.

오정보 유형에 따른 사건경험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사성하항목과 유사성상항목 모두에서 직접수행집단의 출처추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통제항목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항목은 원래항목과 같은 것으로 제시방법은 다르나 원래항목을 반복 제시한 것과 같아서 상상한 집단의 아동들도 직접수행한 집단의 아동들만큼의 출처추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사건경험방법별 유사성의 정도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사건을 상상하도록 한 집단에서는 통제항목, 유사성이 낮은 항목, 그리고 유사성이 높은 항목간 출처추적 정확성에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직접 수행한 집단의 경우에는 통제집단과 유사성이 낮은 항목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상상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게 한다면 유사성이 낮은 항목은 통제항목만큼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들은 사건을 상상만 하였을 경우에는 면접과정에서 겪게되는 사후 오정보 중 대체정보와 부가정보 모두 출처구분에 오류를 많이 보이지만, 사건을 직접 수행하게 하면 부가정보에 대한 출처추적 오류는 감소하게 되어 통제정보 정도의 정확한 출처추적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허위기억 연구에서 요구특성이나 친숙성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던 재인검사나 회상검사와 더불어 판결에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출처추적 검사를 이용하였다. 이는 아동의 증언에 의한 그릇된 무죄 혹은 그릇된 유죄의 오류가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출처추적 검사를 면담과정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형적인 목격증언의 암시상황은 목격정보와 암시정보가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시기상 근접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피험자로 하여금 유사한 정보들을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법정 면접과정에서 아동들이 받게 되는 사후 오정보의 유형 중 원래정보의 특정 부분을 바꾼 대체정보(유사성이 높은 경우)를 주입 받았을 때보다 원래정보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가정보(유사성이 낮은 경우)를 주입 받았을 때에 출처추적 오류를 덜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민희 (2001). 허위정보 제시와 피암시성을 통제한 맥락단서 제시가 아동의 회상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일안·최경숙 (2000). 허위사건 특성과 지연시간이 아동의 기억 주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2), 1-13.

정진수 (2000).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경숙 (2002). 기억연구-아동의 구성기억-.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Ackil, J. K., & Zaragoza, M. S. (1995).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eyewitness suggestibility and memory sourc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57-83.

Ackil, J. K., & Zaragoza, M. S. (1998). Memorial consequences of forced confabulation : age differences in suggestibility to false mem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358-1372.

Batlett, F. C. (1932). *Remembering :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UK : Cambridge Univ press.

Belli, R. F. (1989). Influence of misleading postevent information: misinformation interference and accept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General, 118*(1), 72-85.

Belli, R. F., Lindsay, D. S., Gales, M. S., & McCarthy, T. T. (1994). Memory impairment and source misattribution in post-event misinformation experiment with short retention interval. *Memory and Cognition, 22*, 40-54.

Cassel, W. S., Bjorklund, D. F., (1995). Developmental pattern of eyewitness memory and suggestibility : an ecologically based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19, 507-522.

Ceci, S. J., &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Ceci, S. J., Ross, D. F., & Toglia, M. P. (1987).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Psycholeg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6*, 38-49.

Ceci, S. J., Huffman, M., Smith, E., & Loftus, E. F. (1994). Repeatedly thinking about a non-events : source misattributions among preschooler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 388-407.

Day, K., Howie, P., & Markham, R.(1998). The role of similarity in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source monitor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19-232.

Foley, M. A., Durso, F. T., & Friedman, R. (1991). Developmental comparisons of explicit versus implicit imagery and reality monit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1*, 1-13.

Foley, M. A., Harris, J. F., & Hermann, S. (1994). Developmental comparisons of the ability to discriminate between memories for symbolic play enac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06-217.

Foley, M. A., & Johnson, M. K. (1985). Confusions between memories for performed and imagined actions: A developmental comparison. *Child Psychology, 56*, 1145-1155.

Foley, M. A., & Ratner, H. H. (1998). Distinguishing between memories for thoughts and deeds: The role of prospective processing in children's source monitor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65-484.

Goodman, G. S., & Reed, R. S. (1986). Age differences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4), 417-432.

Johnson, M. K., & Foley, M. A. (1984). Differentiating facts from fantasy : the reliability of children's memory. *Journal of Social Issue, 40*, 33-50.

Johnson, M. K., Hashtroudi, S., & Lindsay, D. S. (1993).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114*, 3-28.

Johnson, M. K., Raye, C. L., Hasher, L., & Chromiak, W. (1979). Are there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reality monit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7*, 120-128.

Leichtman, M. D., & Ceci, S. J. (1995). The effect of stereotypes and suggestions on preschoolers'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68-578.

Leichtman, M. D., Morse, M. B., Dixon, A., & Spiegel, R. (2000). *Source monitoring and suggestibility: An individual differences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indsay, D. S. (1990). Misleading suggestions can impair eyewitnesses' ability to remember event detai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6(6), 1077-1083.

Lindsay, D. S., & Johnson, M. K. (1989). The eyewitness suggestibility effect and memory for source. Memory and *Cognition, 17*, 349-358.

Lindsay, D. S., Johnson, M. K., & Kwon, P. (1991). Developmental changes in memory source monit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2*, 297-318.

Loftus, E. F. (1975). Leading questions and the eyewitness report. *Cognitive Psychology, 7*, 560-572.

Loftus, E. F. (1979). *Eyewitness testimon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McCloskey, M., & Zaragoza, M. S. (1985). Misleading postevent information and memory for event: Arguments and evidence against memory impairment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4*, 554-567.

Parker, J. F. (1995). Age differences in source monitoring of performed and imagined actions on immediate and delayed tes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84-101.

Pool, A. D., & Lindsay, S. D. (2001).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fter exposure to misinformation from par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Applied, 7*(1), 27-43.

Reyna, V. F., & Brainerd, C. J. (1995). Fuzzy-trace theory : an interim synthesi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1-75.

Ruffman, T., Rustin, C., Garnham, W., & Parkin, J. A. (2001). Source Monitoring and False Memories in Children: Relation to Certainty and Executive Functi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0*(2), 95-111.

Sussman, A. L. (2001). Reality Monitoring of Performed and Imagined Interactive Events: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9*, 115-138.

Zaragoza, M. S. (1987). Memory, suggestibility and eyewitness testimony in children and adults. In S. J. Ceci, M. P. Toglia, & D. F.Ross(Ed.),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27-39) New York : Springer-Verlag.

Zaragoza, M. S., Dahlgren, D., & Muench, J. (1992). The role of memory impairment in children's suggestibility. In M, L. Howe, C. J. Brainerd, & V. F. Reyna(Ed.), *The development of long-term retention*, New York : Splinger-Verlag.

Zaragoza, M. S., & Koshimider, J. W. (1989). Mislead subjects may know more than their performance impl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5*, 246-255.

Zaragoza, M. S., & Lane, S. M. (1994). Source misattributions and the suggestibility of eyewitness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0*, 934-945.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4, 61 - 75

The Effect of Similarity between original event and post-event misinformation and Method of Event Experience on the Children's Source monitoring

Mi Hyun Lee Kyoung-Sook Choi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imilarity between original event and post-event misinformation' and 'method of event experience(performed or imagined)' on children's source monitoring. The participants were 34 6-year-old and 34 11-year-old children. Participants of imagining condition were asked to imagine 12 actions and participants of performing condition were asked to perform that. Then, each participant listened verbal post-event informations which was consisted of 4 control actions, 4 low similar actions(added misinformations), and 4 high similar actions(changed misinformation). After filler tasks,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monitor source of test actions(performed(or imagined)/ listened/ both/ nothing).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similarity of post-event misinformation, method of event experience, and age ; as the similarity was high, when actiones were imagined, and when the age was young, the error of source monitoring was high. An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between age and similarity, between age and method of experience, and between similar and method of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n the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the children would be more confused when post-event misinformation was changed than when new information was added to post-event misinformation.

Keywords : source monitoring, similarity, post-event misinformation, method of event experience